

홈 > 뉴스 > 자치행정 > 진안

진안초 오케스트라, ‘푸른음악회’개최

2014년 07월 24일 (목)

권동원 기자



▲ 진안초 '푸른음악회' 공연

진안초등학교(교장 박병래) 오케스트라부가 23일 진안문화의 집에서 ‘푸른 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연은 진안초 교사들의 바이올린과 플루트앙상블은 물론, 바순과 피콜로의 학생 독주, 강사들의 금관 5중주와 앙상블 등 다채롭게 진행됐다.

특히 이번 공연에서는 오케스트라 지도를 맡은 이해영 교사가 처음 악기를 잡은 신입단원들이 쉽게 연주할 수 있게 직접 편곡한 ‘작은별’을 연주해 감동을 더했다.

진안초는 2012년 교육부 지정 학생오케스트라로 선정되어 올해로 3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매년 7월 중간발표 형식의 푸른음악회와 11월 정기연주회를 공연하고 있다.

오케스트라부가 처음 생겼을 당시,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지역 내에도 오케스트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였다.

이러한 인식을 극복하기 위해 진안읍민의 날 행사, 마이예술제, 진안군마을축제, 장애인복지관 후원의 밤 등 각종 행사에 직접 참여하며 오케스트라를 알렸다. 그 덕분에 지금은 다른 지역의 학교에서도 진안초 오케스트라를 견학을 올 정도로 많이 알려졌다.

지역 내에서의 관심도 높아져 진안교육지원청에서는 올해부터 진안 관내 청소년이면 누구나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진안청소년오케스트라를 지원하고 있다.

박병래 교장은 “개교 101회째 만들어져 더욱 뜻 깊은 오케스트라가 앞으로 200회, 300회까지 계속 이어져 진안초의 자랑스러운 전통이 되기를 바란다”며 “산골의 작은 연주회가 학교 내에서 그치지 않고, 지역주민들과 소통하고 공감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안=권동원 기자

© 전북도민일보(<http://www.domi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인쇄하기  창닫기